

2012 년의 아시아: 경제는 탄력적이거나 유럽의 경기침체로 위험 발생 가능

작성자: 셰커르 산카르 아이야르(Shekhar Shankar Aiyar)

IMF 아시아태평양국

2012 년 1 월 5 일

- 유럽의 추가 경기침체가 아시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침
- 아시아는 새로운 경기침체에 대응할 능력이 있음
- 2012 년 IMF-세계은행 회의 장소를 도쿄로 선정한 것은 아시아와의 긴밀한 연계를 반영

아시아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이 지역의 2012 년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IMF 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아시아의 정책입안자들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시아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이 지역의 2012 년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IMF 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되더라도(특히 문제가 발생한 유로존의 경제국들로 인해) 아시아의 정책입안자들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계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지금까지 경제가 매우 탄력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 지역은 높은 국내수요, 낮은 실업률, 거의 완전히 가동되는 공장 등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용 성장은 2011 년의 빠른 속도에 비해 지체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제국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2011 년 3 월에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부터 회복되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엄청난 홍수를 겪은 후에 재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IMF 아시아태평양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아시아가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2012 년은 힘든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했다. 아시아는 전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서, 금속과 쌀 같은 1 차 산품에서부터 정교한 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수출한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 성과를 측정할 때는 외부 수요의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

역내 성장은 수요 감소로 인해 이미 지체되기 시작했으며, 거시경제적 정책 기조의 긴축과 같은 국내 요인도 이에 대한 역할을 했다. IMF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앞으로 아시아의 수출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최근에 역내 금융시장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금융 채널의 전염이 아시아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유로존의 상황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생겼고, 따라서 아시아의 주식 시장은 급격하게 하락했다. 지역 통화는 이미 평가절하되었다. 몇몇 경제국에서는 달러화 자금 조달에 대한 압박이 증가했다. 몇몇 역내 은행의 보험 비용은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 파산 직후의 수준으로 급등했다.

유로존에 추가로 금융 혼란이 발생하면 신용에 대한 접근이 축소되어 아시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유로존의 은행들은 많은 아시아 은행 시스템의 중요한 자금원이고, 무역 신용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망 악화에 대한 대응

위험에 대한 위협이 현실이 되더라도, 아시아의 정책입안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다. 이 지역에는 아직도 충분한 정책적 여력이 있으나, 일부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되었을 때보다는 이러한 여력이 감소했다.

일부 경제국들은 이미 통화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외부수요가 붕괴되는 경우, 재정 정책 건전화는 적절히 지연시킬 수 있다(특히 공공부채 수준이 낮아 조치를 취할 여력이 있을 때).

아시아 경제국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조치와 별도로 2008년의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사용했던 정책들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신용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은행 시스템에 대해 유동성 보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 신용과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앙은행 스왑라인과 역내 외환보유고 공유협정을 더욱 강화 및 가동하여 특정한 통화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축적된 외환보유고가 많으므로 위기가 발생하면 보유 수준을 낮추어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중기 전망

아시아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한 몇 개국이 있으나, 이 지역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과를 유지하고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는 국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은 성장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투자와 수출을 민간소비로 전환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에는 금융 시스템의 개혁과 자유화, 가계소비에 대한 재정 지원, 사회안전망의 추가 확대 등이 있다.

일본은 공공부채를 줄이고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노동 인구의 참여를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추진할 수 있다.

한국은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에 속한 많은 국가들은 기반시설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빈곤 감소에 대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난 20 년 간 소득 불균형이 증가했다.

아시아와 IMF: 도쿄 연차총회 개최

IMF 는 2012 년에 세계은행과 함께 도쿄에서 연차총회를 개최한다. 이 장소는 세계 경제 안정화의 보루인 아시아의 중요한 역할, 그리고 IMF 와 아시아 사이의 건설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반영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아시아와 IMF 의 연계는 이 기구에 대한 아시아의 발언권을 증가시키고, 이 지역에서 IMF 의 주요 스텝들을 선임함으로써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 싱가포르의 재무장관인 타르만 산무가라트남이 국제통화금융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되었고, 중국의 주민이 이 기금의 부총재로 임명되었다.